

## ‘찜통’ 광주·전남 전 시군 폭염경보... “온열질환 주의”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3도 이상...당분간 폭염 기승  
5월20일부터 온열질환자 광주 26명·전남 78명 집계

광주와 전남 모든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8일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목포·진도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 22개 전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여수 거문도·초도, 신안 흑산도·홍도 등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일일 최고기온은 광양 광양읍 33.4도, 순천 황전면 32.7도, 보성 32.6도, 고흥 31.6도, 강진 31.4도, 해남 30.9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공식 기상관측 지점(북구 운암동)은 30.3도로 나타났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는 22일까지 폭염·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11일부터 차례로 폭염 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주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땀을 자주 마시고 온열질환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광주 26명, 전남 7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승호 기자



광주도심 열기 낮추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복구가 실수차량을 동원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 광양 다압·진월면·순천 황전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력’ 전망

김영록 전남지사 “공공시설피해만 이미 기준 넘어, 신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광양 다압면 섬진강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호우피해 실태를 살피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전남 광양 다압면과 진월면, 순천 황전면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은 공공시설 피해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겼다”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

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는데, 공공시설 피해만 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광양 진월면 역시 수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져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단은 4개반 99명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개 시군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현재 국가재난관리 업무시스템(NDMS) 입력 전남지역 피해액은 26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담양 706억원, 구례 695억원, 곡성 399억원, 장성 270억원, 화순 196억원, 나주 140억원, 영광 124억원, 광양 55억원, 함평 36억원 등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주점·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곳곳 지뢰...광주 방역 비상

유흥주점 접촉자 파악 ‘난항’  
사랑제일교회 교인 검사 지연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광주에서 유흥주점·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를 매개로 한 추가 전파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 요인을 빠르게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최근 확진자의 주요 감염원은 상무지구 일대 유흥주점이 꼽히고 있다.  
21번 환자가 나온 지난 12일부터 전남까지 엿새 사이에 유흥주점 손님·접객원과 그 가족까지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오고 간 유흥·단란주점은 19곳에 이르며,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 등 실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주점 방문자 출입 기록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출입 사실을 숨기려는 유흥시설

방문자들의 특성 상,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익명 보장'을 전제로 자진 신고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 확진자를 제외한 1442건의 검체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26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77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흥주점발 감염 관련 직·간접 접촉이 확인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419명에 이른다. 추후 격리자 중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를 일시 폐쇄 조치하고 방역지침 위반 업소 5곳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오는 25일까지 유흥주점 집합금지·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실내 밀폐 공간 내 접촉 가능성이 높은 기타 유흥시설(단란·감성주점, 노래방, 콜라텍 등) 1571곳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펼친다.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다른 지역간 방

문·교류 역시 바이러스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457명이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깊은 광주 교인 중 감염자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지역 교인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중 19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경찰 협조를 구해 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조만간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자진 신고를 거듭 권유하고 있다.  
해당 집회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교인들이 대거 참석,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  
시 방역당국은 자진 신고를 통해 집회 참석이 확인된 24명의 검체를 채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